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海州商業學校設立運動 — 海州人士의 壯擧

一

黃海道 安岳郡에서 高等普通學校設立期成會가 設置되야 二朔도 되지 못한 사이에 所期의 六十萬圓을 모다 모아 安岳人士의 面目을 세웟다는것은 世人周知의 事實이어니와 이것에 뒤를 이어 同道 海州에서 商業學校 設立運動이 이러난것은 興味잇는 現象이다。安岳이 黃海道 西北쪽에 잇서 平南으로도 海州로도 가기 어려운 學生들을 위하야 高等普通學校를 設立하자 함에 對하야 海州는 이미 高普가 잇슬뿐아니라 商業都市인만큼 商業學校를 設置하라한것은 가장 妥當한 方法인것 갓다。信川에 잇는 農業學校가 甲種學校로 昇格運動을 開始하얏다 하거니와 萬一 이것들이 모다 實現하면 海州에 公立高普하나 商業學校 하나, 安岳에 私立高普하나, 信川에 農業學校하나 하야 黃海道의 中等敎育機關으로 理想的 調和를 나타낼것이다。設使 載寧서 明新學校 高等科가 高普로 昇格된다하드래도 慶南에 晋州와 東萊가 隣接하야 高等普通學校를 세웟스되 何等 支障이 되지 안을뿐아니라 오히려 不足한 感이잇는것을 보면 決코 安岳、載寧에 高普가 두개 슴다하드래도 不足할지언정 남는다 할수는 업다。

二

海州商業學校의 設置運動이 突然히 擡頭한것은 安岳高普運動에 刺戟된바 크다 하드래도 海州로서는 벌서 잇서서야 할 運動이다。各道를 처노코 黃海道만한 人口와 富를 가지고 中等校의 적은 곳은 적으며 海州만한 都市에 商業校 하나 업슬수는 업다。海州의 有數한 富豪인 金相敦氏가 商業校財團三十萬圓의 三分의 一인 十萬圓을 獨擔하고 또 同邑의 有數한 富豪인 劉燦榮氏가 三萬圓을 同校基金으로 喜捐하야 이 基金의 折半에 達하얏다는것은 마치 安岳高普基金의 二分의 一을 金氏門中에서 내고 남어지 折半을 一般郡民의 敎育熱에 訴한것과 마찬가지다。人口로 보나 富力으로 보나 安岳에 못지안흔 海州가 남어지 折半의 金額을 集合치 못하리라고는 밋기 어렵다。安岳人士에 떠러지지안케 海州人士의 面目도 顯揚하는바잇슬것을 밋고저 한다。

三

現下 朝鮮의 事情으로 敎育처럼 緊急을 要하는 問題는 업다。敎育을 밧지 안코 敎育을 하지안코 民族의 繁榮과 發達과 幸福과 自由를 享有하겟다고 생각하는것처럼 妄想인것은 업다。이것에 自覺한 朝鮮의 學父兄及 靑少年은 모다 爭先하야 校門을 두두리나니 入學期를 當하면 大中小學을 莫論하고 定員을 超過하야 入學亂을 演出하는것은 吾人의 目睹하는바다。이 悲劇에 가까운 現象을 보고 當局의 措處에만 苦待치 안코 民間側에서 私立學校 設立의 篤志가 簇出하는것은 決코 偶然한 事實이 아닐것이다。

그러나、現下 朝鮮의 中等校의 狀態를 보면 公私立을 莫論하고 男女高普校가 四十三、甲乙種을 合하야 實業學校가 五十八、總計 一百內外에 不過하다。이것을 日本內地의 中學校、高等女學校、實科高等女學校 合一千四百五十五、實業學校、一千七十八、計 二千五百十三임에 比하면 實로 天壤의 差가 잇다。設使 日本內地의 人口가 朝鮮의 三倍라 할지라도 朝鮮에는 그 三分의 一도 못되니 얼마나 朝鮮의 中等敎育機關이 적은것을 알수잇지 안흔가。

四

要컨대 朝鮮의 敎育機關은 大中小學을 莫論하고 모다 不足한 狀態에잇스니 民間에서 私立學校 設立運動이 이러나는것은 實로 民族 永遠한 將來를 위하야 慶賀할바이다。海州商業校設立運動이 擡頭한 때에 이르러 同校設立運動이 有終의 美를 救하기 바라는 同時에 이러한 運動이 各道에 簇出하기를 바라는바이다

積極外交確立에 重要意見一致!

對中、對蘇、對滿國策에 關하야 意見交換

有田大使와 關東軍司令官會見

【新京二十八日發電通】有田大使는 關東軍幕僚及 駐滿大使館員과의 聯合協議會를 終了하고 二十八日午後五時半 官邸에 植田軍司令官을 訪問하야 二時間에 亘하야 會議하얏는데 植田軍司令官은 二、二六事件을 契機로 日本國外交의 自主性을 발하야 有田大使의 奮起를 促하고 兩者間에 對中對蘇對滿國策에 關한 重要意見交換을 行하야 大體左와 如한 意見이 一致되엿다

一、日本政府는 自主積極的外交政策을 確立하야 國際關係의 調整에 努力할것

一、確立된 自主積極的外交政策의 安定을 期키爲하야는 文武協力一體가되야 强力外交의 實을 擧할것

一、國際關係의 調整을 期함에는 爲先對蘇對中兩國交關係의 刷新을 期하고 東亞에 在한 不安의 暗影을 一掃할것이다

有田大使를마저 關東軍重大會議

【新京二十八日發電通】二十八日午後三時부터 關東軍司令部에서 開催된 有田大使를마즌 關東軍과 大使館의 聯合會議에는 關東軍全幕僚以外 西尾參謀次長、軍政部顧問佐佐木少將도 參加하야 爲先 板垣參謀長으로부터 對中對抗政策一般에 關하야 關東軍의 方針을 闡明하고 川邊大佐로부터 對中政策、花谷中佐로부터 對滿指導政策을 各各說明하야 有田大使의 外相就任을 前提로 關東軍의 方針을 披瀝하야 이에 對하야 有田大使는 廣田首相에 重大進言할것을 約하야 同五時半散會하얏다 또有田大使는 特히 出發을 一日延期하야 二十九日午後四時부터 다시 對蘇對外蒙問題討議를 爲하야 會議를 續行한다

滿洲國側抗議에 外蒙逆襲的回答

挑發의責任은滿洲國에잇다고

【우란바톨호다(庫倫)二十八日發同盟】蒙古人民共和國政府는 去二十六日 哈爾欣河支流地區에서 發生한 滿蒙兵衝突事件에 關하야 二十七日附로서 滿洲國外交部大臣張燕卿氏에게 抗議電報를 發하야 同事件의責任을 滿洲國政府에轉嫁하는 態度를 表하엿다 外蒙政府의抗議電報內容은 日滿兩國軍의 一部隊는 三月二十四日부터 二十六日에亘하야 外蒙國境을 突破하고 外蒙領土內에 侵入하엿다 蒙古人民共和國政府는 現在滿蒙兩國政府와의 間에 國境紛爭處理에 關한 交涉이 바야흐로 進捗되고잇는時期에 이와가튼新挑發的攻擊을 加한데 對하야 激憤을禁할수업다 如斯한攻擊은 現在 進捗中인 國境紛爭處理에 關한交涉을 決裂식혀旣往蒙古人民共和國政府에 對한日滿兩國의 不斷越境侵略으로 惹起된 滿蒙國境線上의 緊迫한關係를 더욱 惡化식히기에 努力하는結果라고 볼수밧게업다 如斯한 挑發行爲의 全責任은一切 滿洲國政府에잇고 蒙古人民共和國政府는 滿洲國政府에對하야 如斯한 一切의挑發行爲를 中止하도록 即時實際的措置를 講究하기를要求하는바이다

滿國外交部大臣 外蒙에抗議提出

【新京二十八日發同盟】外交部大臣張燕卿氏는 哈爾賓河北部支流地帶의 外蒙兵의 不法射擊事件에 關하야 二十八日外蒙共和國首相겐단氏에게 電報로써 同政府의 謝罪 責任者의處罰을 要求하엿다 電報內容은 如左하다 三月二十四日午後五時 哈爾賓河北部支流의 北方地區巡邏中이던 滿洲國部隊는 突然 外蒙側陣地로부터 猛烈射擊을 바닷기때문에 不得己 應戰하고 日沒後 步哨中所에 歸還하엿다 右戰鬪에서 日本兵一名은 戰死하엿다 滿洲國領土에 屬하는것이 明白한 哈爾賓河北地區에서 日滿兩國軍部隊에게 對하야 突然射擊을 加하야 戰死者를낸 外蒙側의 容恕치못할 不法行爲에 對하야 滿洲國政府는 玆에 最嚴重抗議를 提出하야 謝罪와 責任者處罰을 要求하는同時에 將來의保證要求의權限을 確保한다

獨態度緩和無望으로 佛强硬對策을講究

歐洲現狀維持의 一大뿔럭結成運動開始

佛蘇交涉을中心으로

【巴里二十八日發電通】로칼르노條約國會議는 獨逸의 對英第二次回答을 기다려 四月二日頃開催될 豫定이나 佛蘭西는 倫敦에 代表를 派遣할것으로 되어이지안코 다음會議는 巴里또는 뿔럭셀에서 開催할것을 英國에 要請할 方針이며 他方佛蘭西는 右會議와 關係업시 蘇聯及小協商國을 糾合하야 歐洲現狀維持主義의 一大뿔럭을 構成하기爲하야 努力하고잇스며 巴里에서 二十七日開始된 佛蘇交涉을 中心으로하야 今後十日以內에 右運動을 具體化식히고 로칼르노條約國會議에 最後의 一齊反擊을 出할것으로 豫想된다

【巴里二十八日發電通】獨逸總選擧의 結果에對하여서는 佛蘭西官邊에서 벌서보지아니 하여도 알수잇다고하야 反對投票를 無效로하는것을 常識으로도생각할수업는選擧는 決코 그民意를 反映하지는 못할것이라 하고잇스니 따라서 選擧後의 히틀러－總統의態度에 對하여도 緩和될것으로는 全然豫想하지안코 結局獨逸은어떠한 口實을 만드러 라인築城의 擧에나아갈것이 틀림업다고 豫期하야 그것에 對하야 强硬對策을 講究하고잇다

獨逸國會總選擧 全土、一齊開始

共産主義者의潛行運動도活潑

突擊隊棄權防止에活動

【伯林二十八日發同盟】國會總選擧는 마침내 二十九日午前六時를 期하야 獨逸全國各地에서 一齊히 開始키로 되엇는데 히틀러總統을爲始하야 黨國의首腦는 今回의 總選擧가 로카르노體制破棄에對한 國民總意의支持를 國外에示威하는 歷史的機會인만큼 그意氣는 極히熾烈하야 各地로 轉轉하면서 選擧遊說에 寸暇도 업는現狀이다 投票는 午前六時부터 午後六時까지 繼續될터인데 棄權을 防止하기爲하야 突擊隊員은 街頭로 巡邏하면서 『絕對로 棄權치말나、棄權은 非國民이라는 烙印을바들것이다』라고 宣傳하고 잇다 同日은 隊員이 各戶를 訪問하고 病人은 自動車로 百%의 出動을 期할터인데 反對黨은 無效라고 斷定할것이므로 有權者四千二百萬人의 거이全部가 官選候補者만에 投票用紙에 『야－』라는 마－크를 附할것은 豫定事實이라고觀測된다 히틀러總統은 이歷史的勝利를 基礎로 七百名의 新議員을 選拔任命할터이다 當局의徹底的彈壓에도不拘하고 共産主義者의決死的潛行活動은 자못活潑하야 『共産黨은 健在!』라고壁에 朱書되여잇는것도 處處에 散見되는바 나치스治下의 非常時選擧風景을 無氣味하게나타내고잇다

蘇聯騎兵二名이 滿人을拉去

大田部隊追擊中、大田少尉負傷

【哈爾賓二十八日發電通】二十六日 저녁滿洲國領 北方 愛輝河에서 滿領中州에 蘇聯兵二名이 侵入하야 滿人二名을 拉去하얏슴으로 附近 國境監視隊에서 大田少尉以下 二十名이 出動하얏든바 追擊砲를가진 蘇聯騎兵十數騎에 襲擊하야 大田部隊는不得己此를 擊退하얏다 이戰鬪에서 大田少尉는脚部에貫傷하얏다

磯谷軍務局長 리드로스氏와會見

【上海二十八日發同盟】陸軍省軍務局長으로 榮轉된磯谷少將은三十日出帆의 連絡船으로 急遽赴任의途에 오를터인데 이에압서 二十八日午後四時半 英國經濟顧問리드로스氏와 第二次會見을行하야 北中問題를 中心으로意見을交換하엿다 리드로스氏는 이會見後 再次北上하야 北中諸情勢의 再調査를 行할豫定이다

世界遺史

日蘇兵衝突事件

二十五日 琿春縣 長嶺子에서 日蘇兩軍의 衝突事件이 勃發하야 兩國國交에 또다시 어즈러운 波紋을 그리게되엇는데 軍司令部發表에 依하면 今月二十五日 日本軍將校四名 下士官五名이 長嶺子附近을 巡邏하고잇든中 蘇聯國境監視隊가 射擊을 加하야 數名의 負傷者를 내이게한바 日本側에서도 이에 應戰하는同時에 主力을 國境方面으로 集結식케 하는一方 外交機關을 通하야 蘇聯側에 嚴重抗議를 提出하야 事件解決에 努力하고 잇다한다

蘇聯側에抗議

駐蘇日本大使大田氏는 二十七日 外務人民部에 스토모니야코프次長을 訪問하고 長嶺子事件에 對하야 蘇聯國境保安隊가 滿洲領內에 侵入射擊한事實과 右事件의責任이 全然蘇聯側에잇다는旨를指摘하고 嚴重抗議한바 스次長은日本의 抗議는 全然根據가 업다하야斷乎拒否하고 日本軍이 蘇聯領土內에 遺棄한 屍體와 物品等으로보아 日本軍이越境한것이라하야 日本側의主張과 正反對되는 事實을 擧하야 逆襲的으로抗議하엿다

軍縮會議의終幕

倫敦海軍軍縮會議는 昨年十二月開會以來 前後五個月間 波瀾을거듭하드니 마침내 二十五日에이르러 伊太利를除한 英佛米三國間에 新協定이成立되여 調印式을 마치고 玆에 終幕을告하게되엿다 調印을마친 新海軍條約은 每年마다 四個月以內에 當該國의 建艦을 他의締約國에 通告한다는 所謂通報案과 主力艦 巡洋艦 潛水艦에 對한 制限을 規定한 質的制限案의 二部로되여잇스나 第三部에 安全保障條項을 揷入한것으로 이두案은 事實上 그存在意義를稀薄케하엿다

다다넬스再武裝

土耳其政府는 獨逸政府가 로카르노條約을 破棄하고 라인再武裝을斷行한데 刺戟되여 로잔느條約에 所謂『海峽制度』에關한 條約을 一方的으로 破棄하고 다다넬스海峽의 再武裝을斷行할決意를固히하엿다는데 土耳其政府가 右決意를하게되엇슨 英國으로부터 暗默的諒解를 獲得하엿기때문이라하나 但土耳其政府는 로잔느條約의破棄決意를 否認하고잇다

獨라인撤收拒否

獨逸政府의 로카르노締約國協定案에 對한 回答은 二十四日駐英獨逸代表로부터 이－든英外相에게 手交되엿는데 그內容을 要約하면 左와如하다

一、로카르노締約國會議로부터 獨逸政府에 提示한 新平和保障案은 不平等關係를 將來에 存續식히는것이므로 獨逸은 同意할수업다

一、獨逸은 國家로서의 體面을 損傷하고 平等한權利와 抵觸되는 提案은 모도拒否함이 自己의 義務라고 思한다

共軍山西進出

지난三月下旬부터 山西省內에 侵入하기를開始한 徐海東 毛澤東 彭德懷等 主力共軍의進擊은 去益 猛烈하야 이미 山西省中南部에亘한 廣汎한地域을 完全占據하엿다하야 이에對하야 討伐에 必死의힘을다하고잇는 山西軍 中央軍六個師 商震軍二個師도 共軍의威勢에 壓倒되여 束手無策의現狀으로 只今의情勢로보면 山西全省의赤化도 거이時間問題로되여잇다한다

괌島에 根據地構築 米海軍에서企劃

太平洋上의「지브랄타」出現!

防備制限解消에따라서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日本政府의 華府倫敦兩條約廢棄와 海軍縮會議脫退로 米國朝野에서는 華府條約第十九條에 關聯한 太平洋防備制限撤去說이 갖論議되여잇는데 米國海軍首腦部에서는今年 華府海軍條約期限滿了를 期하고 至急 괌島에根據地를 構築하고 太平洋의 지부랄타를出現식히기爲하야 目下 銳意 考究中이다 米國海軍企劃部에서는 目下 괌島의 海軍根據地로서의 經濟的 技術的 能力에 關한調査報告書를 作成中인데 이것이 完了되면 米國政府將來의 太平洋政策에 重大轉化를 招來하리라고 期待된다 그리고 現在米國海軍部內에 괌島武裝에 對한 意見 大體 兩派로 나뉘어 積極論者는 充分한 要塞構築으로써 하면 괌島의 太平洋지부랄타化는 期待할수잇다고 主張하고 이에對하야 消極論者는 如何히 要塞를 構築한다고해도 今後一朝有事之時에는 容易히 敵軍에게 陷落될 危險이 잇슴으로 如斯한 要塞構築은 國防上無意味라는 見解를 抱懷하고잇다 以上 部內意見이 對立되엿는데도 不拘하고 政府가 二十七日 突然 벤싸민·마크·안드리스大佐를 괌島知事로 새로이 任命發表한것은 米國政府의 方針을 示唆하는것이라하야 重大視되여잇다 괌島는 太平洋 海底電線의 中心地일뿐만 아니라 더욱 最近에는 太平洋橫斷 定期航空의 着陸地로 强力한 無電臺가 設置되여잇는等 其重要性은 顯著하야 米國政府는 今番 太平洋防備制限撤廢等의 軍事的 重要性에 鑑하야 特히 마크안드리스大佐를 拔擢하야 十二分 實地硏究를 하게할 意向이라고 解釋된다 괌島는 人口一萬八千人 目下 海軍將校 四十名 水兵及陸戰隊員六百名을 常駐케하고잇는데 華府條約防備 制限條項으로防備設備는 目下 五吋砲六門을 裝備하고 잇슬뿐으로 燃料補給設備도 업다 그러나 海軍專門委員의 見解에 依하면 이에 改修裝備를 施하면 世界屈指의 良港海軍根據地가될수잇다고한다

僞條約廢棄絕叫

히獨總統最後의獅子吼

【킬론二十八日發電通】히틀러獨逸總統의 總選擧遊說의 最終演說은 二十八日夜 킬론市에서 行하야 라듸오로 全國民에게 放送하엿는데 히틀러總統은 獨逸이 只今까지의 僞條約을 破棄하고 自由平等의 基礎에서서 眞正한 條約을 獲得하기 爲하야 百%의 擧國一致를 此際에 반드시 明示하지안으면 안될것이라고 絕叫하엿다 그리고 이것이 眞正한世界平和에로의 길이라고 結論하야 萬雷와如한拍手를바덧다 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只今까지 獨逸에對하야 條約의神聖을 說明한 사람가운데 一人도 이條約이 如何히 締結되엿는가를 明白히 說明하려한者가 업섯든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砲口를 겨누고 署名케한그것이 무엇이神聖한가 我等은 다만 이不正을改正하려할뿐으로 別로 달리變한것을 企圖함은아니다 이마음이萬若諸君의 마음이라고하면 明日의 投票에서 이것을表示하라 이에依하야 獨逸全民族이 要求하는것이 判明될것이며 따라眞正한 平和의新事態는 스사로 생길것이다 이리하야 我等은 眞正한 平和의握手를 佛國으로 보내여 六千萬國民과 親交를 맺을수잇슬것이다

八面錄

安岳高普期成이 잇슨지 얼마안되어 海州에 또다시 商業學校設立運動이 擡頭。

◇

서로 競爭을 하야 學校를 세우는것 갓트나 조흔 일의 競爭이라면 얼마든지 贊成。

◇

海州에 商業、信川에 農業、安岳에 高普、地理的 人文的으로 보아 理想的 敎育。

◇

北津에 水産校하나좀 잇슴직한일。

◇

蘇滿國境서는 네가 國境을 넘어왓느니 내가 國境을 넘어갓느냐고 서로 是非。

◇

兩國 地圖가 틀려 잇는데야 어데다 憑據를하고 裁判을 한단 말이오。

◇

日 힘、힘의 解決이 唯一의 것。

◇

廣田內閣의 全閣員이 가추기 前에 또다시 商相 更迭。

◇

政局도 不安커니와 政府도 不安定。

米日小安

本日의米日爲替 前日比較 賣二十八弗八十五仙 一仙安 買二十八弗八十三仙 一仙安

日曜氣配

◇期米＝燃材料로 新規賣買는 寥寥하야 氣配는 不變

◇株式＝玉整理一巡을 相俟하야 取組不安 人氣는 解消하야 一面預金 金利引下整明確히 低金利政策의 前奏이므로 增稅와 統制에 壓倒되엿든 氣分도 稀薄해저 人氣는 一般으로 買募 目先은 一段高値가 豫想된다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棉絲＝小締

今日本紙四面

三好クリーム

三好煉白粉 三好刷白粉 三好水白粉 三好化粧水 三好固煉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頰紅 三好立마－드 三好口紅 三好石鹼 코리아石鹼 三一石鹼 風林石鹼

新女性의 伴侶者! 거칠어진살결도 ... 못한분께에 도리어 거울기쉽고, 적어지기쉽습니다。보을마지하는부드러운살결에 꼭맞도록 맨든三好크림만이 그대들의美의조건을現代的으로 꼭맞도록구비하게보호하여줍니다。

君が代 白毛染 赤毛染 기미가요

婦人은千歲白毛染 頭髮의化粧은君が代로 定價 新型 二十錢 四十錢 粉製 五十錢 液製 德用二十錢 全國藥店에잇습니다 東京市淺草區 本舖 山吉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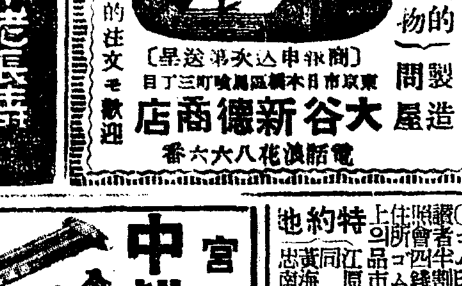
京城自動車學校 生徒募集 朝鮮總督認可 京城府太平通 (元鮮滿自動車學校) 電話本(2)〇四九一 振替京城二一二三七番

山羊乳 朝晝配達 乳山羊分讓 京城東小門外 明本山羊牧場

東京代表的 各種袋物 製造問屋 大谷新德商店 當店へ見本的注文を歡迎

安い 日本で一番安い 大阪浪速 三千堂 特約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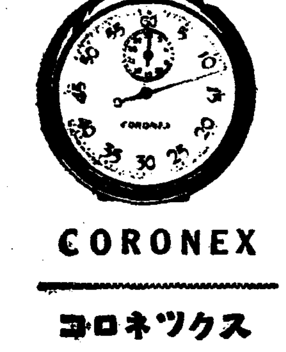
代金服藥後支拂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 平和堂



宮澤式 中耕除草機 全鋼鐵爪カシメ式 前後輪調節自由 四寸以上在庫豊富 十一年度型 特約歡迎 宮澤農具製作所

東洋劇場 西大門通 電光3 三一一番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一

ストップ運動用時計破格賣出! 堅牢 正確 CORONEX コロネツクス 責任保證付 クローム側無地十七型 1/5 特價 二十三圓 0/11 特價 二十四圓 今番瑞西コロネツクスストツプウオツチ專門會社로부터大量直輸入 一千個에限特價提供함 標準時計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平田百貨店時計部 京城本町一丁目



借地料를九倍增額 千五百名借地人이蹶起

家屋破壞하라는地主와執達吏를包圍 平壤西城里借地紛爭惡化

【平壤支局電話】지난이십구일오전열시경에 평양부서성리 이십구번지 지주(地主)오경수(吳京洙)와 집달리(執達吏)가 동리차지인조합(借地人組合)서긔(書記)장의강(張義鋼)외 차지인조합에든 각호에가서 지료(地料)를 내지안흔다고 하는리유로 집을 파괴코저 하는것을 동리에 거주하는 동조합원오십여호 일백오십세대약천여명이 포위하고 구타하려는것을 경관대가 출동하야 해산식히엿는데 사실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갓다한다

전긔 지주인 오경수는 작년가을 서성리 이십구번지 일대를 매수하야 종래한평(坪)에 팔전(八錢)식밧던지료를 일약칠십전 이라는 약구배로 올렷슴으로 이땅을 빌어가지고 잇는 약 일천오백명은 이에 반대하는 동시 차지인조합(借地人組合)에서 기하야 지주와의 사이에 알력이생겨 결국 소송(訴訟)중에잇든바 전번에 지주측에서 승소가 되엿슴으로 지주인오경순은 자긔요구대로 지료를 지불하지안으면 집을 헐겟다고 하야 흙장밧이 분쟁중에잇섯든 것으로 동지 차지인조합에서는 차지인조합련합회(借地人組合聯合會)에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는동시 동조합 간부(幹部)수명이 현장에 출장하야사건을조사한후 남정(南町)삼정(三井)변호사 집에 본부를둔 지주조합(地主組合)에 항의(抗議)를 제출하여 끗까지 싸우리라는데 사건의 귀결이자못 중대시되여잇다한다

電話를利用한 時局標榜强盜

海州署에서逐速捕

【海州】지난 십일일오전 구시경 해주읍 남본정(海州邑南本町)일백사십오번지 금성여관(錦城旅館)주 안태선(安泰善)에게 전화를 걸어 상정(上町)소학교부근으로 오라고하야 전기 안태선은 현장으로 간즉 다시 신사(神社)뒤ㅅ산으로 끌고가서 자기는 상해(上海)모사상단체에서 파견된 밀사(密使)로서 군자금모집을 왓다고하며 신체를 수색하야 현금칠원을강탈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판 해주서(海州署)에서는 서원을 총동원하여 범인체포에 활동한결과 지난 이십칠일 드듸여 그진범인 사리원북리(沙里院北里) 이십번지 김항준(金恒駿)을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거스럼돈詐欺

충북충주읍대수정(忠州邑大手町) 우재선(禹在善)(二三)과 부내남미창정(南米倉町)이백오번지 홍거복(洪巨福)(二一)두명은 서로짜고 이십팔일밤아홉시오십분쯤하야 부내의선동(義善洞)구십사번지 담배가가에서 담배한갑과 물건약간을사고 거스름돈구원사십전을사긔하여가지고 도망하다가 순찰중의 와룡동(臥龍洞)파출소원에게 체포되야 지금종로서에서 취조를밧고잇는중이다

發明學會總會

시내공평동(公平洞)에잇는 발명학회(發明學會)에서는 리사묘씨의세무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분쟁치안흔 문제로 말성이 되어오든중 드듸여 이십팔일 오후일곱시에 시내종로 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리인(李仁)씨 사회로 제일회정기총회를 열고회층을 수정하고 임원을 다음과 가티 개선하엿는데 신임 전무리사는 원응상(元應常)씨로결정되엿다

顧問 呂運亨、尹致昊、李仁、金性洙、崔奎南、柳光烈、李重求、李相昊、玄鎭健、朴興植

一、理事長 元應常 一、專務理事(兼任) 一、理事 金昶濟、金容瓘、朴吉龍、金璇明、崔錫煥、元應常、 一、監査 金德雲、洪淳縮 幹事 經理部申正浩 法務部李錫雨 事業部李德均 出版部朴興林 宣傳部 徐壬擇 以上

無免許運轉事故

【豊川支局特電】이십구일 오전세시쯤에 황해도풍천(豊川)공의(公醫) 한시권(韓時權)씨의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수면허장도가지지안흔 그의동생 한리권(韓利權)이가송화군풍리면(松禾郡豊里面)방면으로부터 풍천읍으로향하야 운전하여오든중 도중에서 전복되여 승객다섯명 가운데서 정만종(鄭萬鍾)은 중상을 입엇스며 자동차도 만히파손되엿다 자가용 자동차로서 공연히 대절(貸切)영업을 할뿐만아니라 운전수면허도 업는 사람으로하여금 늘 운전시키고 잇슴으로 일반은 자못 비난이 만타 그러고 사고를 낸 한시권은 방금 관할경찰서에서 취조중이다

基本金을醵集 分校擴充期成

【南海】남해군삼동면미조향(三東面彌助港)은 사백호에약 삼천인구가 거주하는 남해제일의 어항이다 그러나 교육긔관이라고는 동면동천리(同面洞川里)에 본교를둔 보교의 부교장일개소가 잇슬뿐인데 그것도 수속상 과도로 본교는 확한변제인데도 불구하고 사학년 이학급제로 확십명가량밧게 더수용 할수업는 아주적은 교사임으로 오백명이 상의 학령아동을가진 미조향주민들은 교육긔관 확충운동을맹렬히 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지난삼월십오일 동지주민은 동분교장에서 교사확충긔성회를 조직하고 다시 동십칠일에 긔성회총회를열고 교사건축비를 면저적립하야노코 인가를 신청하자는 결의를하얏다는데 목적은 학교증설과 학년연장하자는것이라고하며 교사건축 긔금분담과 역원은 다음과갓다

▲現道費父兄八百圓貸 ▲補助一般民 一千二百圓貸 ▲松亭里民六百圓貸 ▲計二千六百圓

◇役員—鄭正燮 李鍾鎬 梁沂煥 (期成會會長) 張天錫 金鍾鳳

三輪車窃盜

시내원정(市內元町)일정목 삼십삼번지 김중현(金重鉉)의집에잇는 김영섭(金永燮)(二七)은 이십팔일밤열한시경에 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의십팔호 압헤노여잇는 시까삼십원가량되는 삼륜차(三輪車)한대를 훔처가지고 도망질치는것을 소관룡산서원이 발견체포하얏다는데 이는 요지음 자전거절도의 상습자가 아닌가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한다

自動車街樹와衝突 乘客五名重輕傷

二十七日東萊溫泉場에서 一名은生命이危篤

【釜山】지난 이십칠일오후십시경 부산부내영정(榮町)경남자동차부 소유의 운전수 최종조(崔宗祚)(二七)가 부내초량정 사백사십번지 자동차운전수 김태주(金泰柱)(二三)동서정(西町)자전차판매업 신중천(申仲千)(三七)초량정 구백팔십일번지 운송업 오수요(吳壽要)(三七)동래권번(東萊券番)기생 박래선(朴來仙)(二三)등 사명을 태우고 동래읍(東萊邑)에서 온천장(溫泉場)을 향하야 질주하든중 동온천장입구에서 압헤서 오는자동차두대를 피하랴다가 실수로 도로변목(街路樹)에충돌하야 운전수급 승객등오명전부가 인사불성에빠저 다른자동차에 부상자를실고 부산초량영제의원(永濟醫院)에 입원시겨 응급치료를하얏는데 운전수최종조는 생명이위독하고 오수요는치료약사개월기타는 약이주일을요할중상이라한다

黃金禍! 家庭禍!

百萬長者의堂堂한愛息이 一轉·强盜로淪落될때까지

【新義州】귀보=지난 여섯흑열 안동현평화려관(平和旅館)에서 체포된 석하(石下)의강도 김병오(金秉梧)는 안주서문밧게 거주하는 평남의거부 백마장자고김선기(金善基)(假名)씨의 다섯재아들이라한다 백마장자의 아들로 아직이십일세라는 어린나이에 엇재서 강도라는 무서운 죄명을 쓰고 철창에 신음하는몸이 되얏는가? 그가정사정은 극히복잡하야 금전에마음을가지고 골육을불고하는 현대사람에게 일대교훈을 주는것이라고도 볼수잇다

◇ 김병오는 백마장자의 향내아들로 어렷슬때는 온갓귀염을밧음대로 하야 세상에 어려운일을 모르고 자랏섯다 그곳보통학교를졸업하고 고보(高普)에입학하얏슬때 그부친이 별세하자 그맛형 김병○(金秉○)는 가산전부를 상속하야 그부친의 대신으로 호사를 누리는한편 병오의『몫』으로난호아주게된 일만여원의 토지도 병오가 아직어리다는 리유로 이를 맛타서보관하여 두엇섯다한다

◇ 안락과 방종으로 자라난 병오가 학교의 규측적생활에 실증이날뿐아니라 사랑하야주든 그부친이 세상을 떠나매 모고보도 중도퇴학하고 방종생활의 길을 밟게 되얏는데그와따르지안는것은 오직금전뿐이엇다 금전에 주림을당하게된 병오는 그맛형에게 마러두엇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얏스나 그형의 대답은 『그토지는 본래은행에 저당을하얏든 토지로 그동안리자로 지불하얏고 또 몃백원식 차저다쓴일이 잇서서 이것을 다 청산하면 내여줄것이 업다고』 거절하얏다

◇ 이에 분개한 병오는 점점 타락생활에 드러가기시작하고 이러와정비리로 금전의 고룡은 더욱심하야젓다 어떤때 신의주엇던려관에서 밥갑을 지불치못하야 옷갓지피를 당할때 그형은 『그따위ㅅ에의 비갑슬 무러줄수업다!』고 거절하얏다 그리하야 병오는 눈물을 흘니며 친고들에게 사정하야 군색을 모면할도 잇섯다는데 백마장자의 형을 둘뿐아니라 그일족이전부다 상당한 생활을하는터이라고한다

◇ 그동안 약혼하얏든 혼처도 자연해소가되고 이세상에서 버림을바든 병오는 신의주로 드러와 마음을 잡어가지고 다른길을 개척코저 대익상회(大益商會)의 점원이 되얏섯다 그러나 닥치는 금전고룡에 엇절수업시 금년이월십오일 주인에게 『누가 도사서원을 꾸어달낸다』속이고 금사십원을 사긔한것을 필두로 내다르는길에

◇금월십일일 신의주 신만여관(新灣旅館)에 투숙하는 신학준(申學俊)이란 사람에게 『자긔집에서 전보위체로 돈삼십원이 온다』고 속히고 금팔원을 편취하얏스며

◇또금월십오일 신의주 반도사(半島社)박용식(朴龍植)이란사람에게 외투한벌을 빌려달라하야 안동으로가서 십원에잡혀먹고

◇금월십사일 국경여관(國境旅館)에 투숙하고잇슨 김모에게서 금이원을 편취하고

◇금월이십일일 석하(石下)에서 중국인을 빗그러매고 금십원을 강탈하는 대담한 강도범행을 한것이다

◇ 이와가티 그의과거는 분마에찬혐괴를 진정치못하고 금전때문에 그와가튼 신세가되고 말엇는비 아직 이십일세의 혈긔미정한 청년! 그범죄의절반책임은 가정환경이 지지안흘수업슬것이라한다

逐年問題化하는 仁川水道問題

制度改革을論駁

【仁川】팔만부민의 보건을위하야 수도사용을 보편화시키고자 공설수도사용자인 세궁민층에 조합제로 수도를 사용케하야 저렴한 사용료로써 만흔사용자를 어드려는 인천부수도판매조합은 조합원이 놀기는커녕 도리혀 조합비선납의 관계와 조석으로 현금을가저야 음료수를엇게되는 폐단이 잇서서 사용자는 점점줄고 오죽 정수(井水)사용자가 늘어가는 현상이라 이에인텔도 인천부에서 수도사용료를 조합제실시전에는 공설수도사용료징게가 일변에 일반사용 내지 이만원이엿든것이 실시후에는 엄청나게 줄어 사용료로 보드라도 인원이 적은 관용(?)에 만흔사용을하게되니 사용료의 손실이 적지안타는데 사천이백사십명(?)의 공서동의 일변사용량이 십사입방미(立方米)임에도 불구하고 팔만부민의 최하층생활을 하고잇는 빈민층의 수도사용은 십입방미사정입방미에 불과하다하니 이는부민의생활상 큰문제로 보건상의 제도를 사용한 부의책임이라하야 의원간에 큰문제가되여 금번내에는 제도를 다소개혁하리라한다

朔州對岸에土兵 越江侵入을畫策

【朔州】평북삭주서(朔州警察署)에 드러온 정보에의하면 대안의 관전현(寬甸縣)제육구(第六區)소자(?)에 거주하는 청년단면에의한 일대는 마적(?)이와 화전민(?)... 김영래(金永來)(二一)등은 ... 아이는 이로인하야 지난이십사일 사망하고 말엇다 귀성경찰서에서는 파출지사로 귀성경찰서에서 구인되여 방금 취조를 밧는중이라고한다

삭주서(朔州署)관내(?)강계(?) 벽동(?) 이와 (海山) 점(占林)등의한천부의 이십명이 이동하야와서 대안일대에서 조선중을 습격하려고기회를 노리고 잇다하야 삭주서에서는 강안을 경게중이든바 이십일일 오후네시경에 그선발대 이십명은 이미 강안으로 향하엿다는 정보를밧고 오후십시에 삭주서장이하 사십이명은 대안으로 출동하엿다한다

鍍銀비녀詐欺女

家庭婦人은注意하시요

가정부인은 주의하시요—본적을 경북선산군 장천면 명옥리(慶北善山郡長川面明玉里)에두고 시내화천정(和泉町)에 사는 김태주(金泰柱)(二七)는 비녀장사를하야 그날그날을 사려오든터로 지난이십칠일 오후다섯시경 시내금정(錦町)팔십칠번지 백점쇠(白点鐵)의마누라 은비녀와 자기가팔라다니든 거중은비녀와를 슬적박귀가지고 도망질한것을 탐지한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 즉시 버어슬체포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며 이런종류의 사긔상습의혐의가 농후하다고한다

仁川府尹失言問題 府會에서再論戰

【仁川】지난 이십칠일 속개된 인천부회석상에서 사무비(事務費)제이독회에들어가자 돌연 황윤(黃潤)의원으로부터 일독회때에 부윤으로부터 조선인은 적임적재가업서 채용치못하엿다는 말에 일반 조선부민간에 불평과 장래에잇서서도 가능이업는 조선인은다수채용하라 함에 영정부윤으로부터 조선인에적재가 업다함은 부청내에 업다는말이 아니엿스니 오해치말나 이후로는 가급적조선인고원과 부리원을 다수채용키를언명하얏다한다

開城盜電盛行

【開城】개성전등은 타지방에비하야 료금(십촉=칠십삼전)도 빗싸거니와 불빗도매우약하다고하는데 그반면에는 일반가정의도전(盜電)이극성한모양이라는데 지난십륙일 동회사에서는 돌연비상소집을하야가지고 전부터 이를 잘듯 도전취체를하얏는바 하룻동안에 압수된 도전건수가 삼백여건이란 놀라운수자를보엿는데 그중에만월정(滿月町)구역이가장심하얏다고한다

鼠賊들의새照準焦點 新入生의주머니

教科書흥정판에"쓰리"가出沒

사월일일개학긔를 압두고 새학긔교과서와 문방구를 준비하려는 어린학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악한이 발호하고잇다 부내충신동(忠信洞) 십팔번지 강천쇠(姜千釗)(一五)는 이십구일 오전열한시 관훈동(寬勳洞) 북성당(北星堂)서점에서 교과서를 사고잇든 제일고등보통학교이학년생도인 충신동 사십구번지에사는 윤재룡(尹在龍)(一六)의 주머니에 가만히 손을넣다가 들킨것을 돈도 훔치지못하고 발각되야 방금 소관종로경찰서에서 절도미수 혐의로엄밀히취조를 받는중이다

春調

全日本學生卓球에 朝鮮學生惜敗

조선탁구협회주최의 전일본학생초빙 탁구대항전제일일의전조선학생련맹군과의 대항전은 이십팔일오후다섯시반부터 경성부민관중강당에서 거행하엿는데 당일시간관계로 제일라운드도 마치지못하고 중지하엿다가 이십구일오전열시반부터 동장소에서 계속 개전한바 전조선학생련맹군은 다음과가튼 전적으로 고상박성태(高商朴盛泰)군 고군분투하엿스나 제이라운드에드러가 석패하엿다 그리고 전일본군대 전경성군대항전은 동일오후한시사십분부터 열리엇는데 이날저녁까지의 량군전적은 다음과갓다 전일본군은 경성에서 삼회전을 마치고 동일밤 열시오십오분발북행렬차로평양에원정하야 그곳에서 삼십일 전평양군과도 대항전을 행할터이라한다

全日本 全朝鮮學生

第一라운드

川村(立大)3…0菊地(齒專)
島村(早大)3…1早瀨(齒專)
安井(京大)3…0田中(醫專)
青木(同大)0…3朴盛泰(高商)
青木(外語)3…1甲斐(齒專)

第二라운드

田村(日大)3…1朴盛泰(高商)

全日本 全京城

第一라운드

安井(京大)3…0湯龍煥(總府)
今(早大)3…1豐明煥(同上)
穎(立大)?朴在範(同上)
川村(立大)?金相赫(同上)
青木(外語)?李在雨(同上)
田村(日大)?朴盛泰(高商)
島村(早大)?早瀨(總府)
青木(同大)?早瀨(齒專)

럭비課稅問題에 日本體育協會干涉

日本體育協會에서는 廿六日正午에 同事務所에서 理事會를열고 這間럭비蹴球協會理事長提案의花園競技場에서의 競技課稅問題에 關하야 平沼副會長、大島專務理事及 各理事等이 文部、內務兩大臣을訪問하고 極力諒解運動을 하기로決定한後 散會하엿다

天氣豫報

槪況 小低氣壓은 滿洲附近에 잇스며 高氣壓은 北中國으로부터 朝鮮에 퍼지고잇다 本州地方은 氣壓이 약하고 맑으며 朝鮮은 개엿다고 하는 不安定하다 東海岸은 小雪이잇고 日本內地는 日氣가 良好하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 개이며 一時는 흐리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明日京城地方은 개이며 京畿道全區도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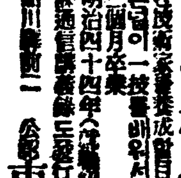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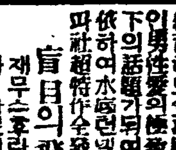
昨日 最高 九度五 最低 一度三
今朝 最低 ○度一 正午 四度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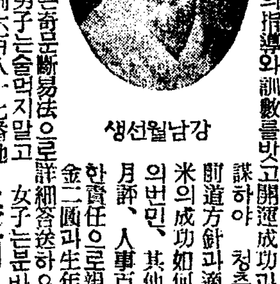
衣雨 우장옷
雨衣用途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 生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朝鮮防水布製造所 京城光熙門外新堂里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二〇二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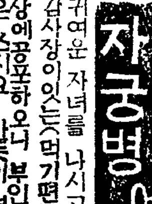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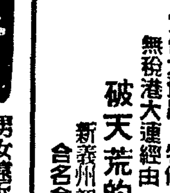
內地糯米 白米 玄米 中粉米 赤豆 黑豆 中精米 産地直輸入商 釜山大倉町四丁目廿五番地 合資會社 東一精米所 代表社員 尹貞浩 電話 一九九〇番

朝報案內
女事務員募集 年齡二十才以上中等學校卒業程度者數名採用自筆履歷書에三錢切手封入申込 京城府黃金町二丁目太平生命ビル三階新兒童社
一分二厘電話金融 日收月收 金融恩給 立替取扱 京城府大門通一丁目 食道園隣 電話本局三六二〇 玉川商會
時計 上海某外人商館 融資處分品引受 市價半額に提供 型錄無代進呈 新義州府彌勒洞 日猶洋行
住宅地 月賦로分讓 場所 新堂里(石山洞) 京城鍾路(靑年會館裏) 崔代書 電光(3)一四七三
リリヤン 뜬사실 끈 색실 佛蘭西刺繡 日本刺繡 其他手藝材料 製造都賣 小賣 (型錄見本進呈) 朝鮮沙里院本町 天光堂 振替京城二三七六七番

大阪着尺問屋案內 春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限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 石尾仁本店 大阪市東區淡路町四ノ一 武村製作所 電話東八一一六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銘製造卸 大五道具 卸値段表進呈
特約店募集 高級別誂注文 品質仕立은責任保證付 ◇見本送呈(申込은大阪에) 二十圓부터 三十五圓까지 別誂注文合 十八圓부터 三十圓까지 服折衿三揃 別誂注文 ●既製品 セビロ 十一圓、十二圓半、十五圓 オーバ 九圓半、十圓半、十一圓 合オーバコート 創業明治二十八年 大阪市谷町一ノ一四 羅紗問屋 正司憲商店 京城府櫻井町一ノ八一三〇 京城支店
繁昌하는商店主는반다시 조선문 相互通信을愛讀하고잇습니다 本號의特色。絕對로信用잇는大阪貿易商廣告掲載 ○寫志家에、一部金壹圓式하는購讀料를 一般人士에게는一部金十錢으로割引 振替大阪七八九九九番 大阪市上福島南二ノ三三六으로先金注文하시오 本紙創刊大正十三年 大阪相互通信社
諸金物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卸問屋 (同業者에限하야 型錄送呈함)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二丁目 正宣刄物本舖 大野合名會社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養成을目的 學力年齡을不問하고誰든지一技를배워서獨立的生活의安定을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寫眞技術) 東京寫眞學校  ◎校外 寫眞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市小石川區 規則書無代送付
이저버린 生命 
일청 전쟁 때에 어떤 부인이 평양성에서 아희를 업고 도망하려하야 총알중 아희는 업지 안코 벼개를 업고 황황히 도망하다가 정을 먹이려고 아희를 나려 본즉 아희가 아니오 벼개엿다한다 이와가티 사람이 세상 풍란 가운데서 살녀고 애를 쓰는 중에 한 동안 살다가 보니까 살아지지는안코 어느덧 죽게되엿다 이는 육신이 그러케 늙어서 죽게 되엿다는 사실 보다도 더욱 령혼의 영원한 생명을 일코 세상 마즈막 날에 실망 락담하게 되는 것뿐이다 『어리석은자여 오날 밤에 네 령혼을 도루 차즈리니 네게 비하면 나으리라』 하섯다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 四月七日(前期學則)要貳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三部(各中等學校入學又는上級編入受驗準備) ◎中學校商業學校資力養成科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五三三六〇番)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七回生徒募集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四月十六日第一部 ◇學則要二錢切手校舍大概張數地六百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 (電本五三三六〇番)
원효물감 (商標登錄)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番 振替京城八〇四番
玉屋時計師養成所生徒募集 詳細要二錢切手 新義州若竹町十一
奇人奇聞의片信 동양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생선월남강
姜南月은 果然엇더한자인가 그는그의빗나는두눈이 사람을대하는즉시 過去現在未來를 선듯판단하는 朝鮮이 나흔 天才觀相家이다 하로밥비 先生의指導와訓數를밧고開運成功과 幸福을事前에圖謀하야 청춘의煩悶을해결하라 前道方針과適業指示며、金鑛期米의成功如何、結婚及夫婦관계의번민、其他訴訟、就職、行年月評、人事百般모든問題에永遠한責任으로親切詳論◇地方은料金二圓과生年月日時分明記送하되 面視於無形하는外生은奇字斷易法으로詳細答送하오 男子는술먹지말고 女子는분바르지말고오시오 寫眞添付尤好 京城府昌信洞六百八十七番地 東大門越便公衆便所側골목入 姜南月觀相所

實效 雄辯二 優ル多辯無用ナリ 慢性胃腸藥 タイト 胃腸病に永年苦しむ人 高貴藥一度服用せば飛放れたキ、メにキット驚く 急性慢性下痢症ニ八百發百中 代理店 京城 木村藥房 京城 新井藥房 責任本舖 隈田春日堂大藥房 大阪市港區尻無川北通五丁目
부인병 자궁병에 조혈정  귀여운 자녀를 나시고 자궁병이 나신 감사장이 잇는(먼기편한 부인약)조혈정이라는세계적 최신발명약을 세상에 공포하오니 부인병으로 자녀를 못나신부인은 쓰시요 반드시 병은 나흡니다 신통한 효험이 잇사오니 이혼하게된 부인도 쓰시고 불순、월경과다、자궁냉병、대하증、적대하、백대하、가슴이 답답 냉증 두통 현기증 ... 調血精製造元 日光製藥社 京城鍾路(宗廟電車停留場南側)私書函光化門局三二七番 振替京城二三六四二番 (支店、代理店、特約店募集規定書進呈)
公認 漢榮高等學院生徒募集 ●普通科(高普、商校、農校、入學準備)五〇名、開學四月十一日、詳細問于本學院 ●高普科(高等普通程度)一、二、三年若干名、電本六八〇、取次 振替京城八六六八 (京城三角町)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十八金代用側懷中、腕卷時計 宣傳大賣出 特價 六、五〇 無稅港大連經由 各國時計多量入荷 破天荒的廉價提供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商報進呈

優美館 寬鐵洞 電光三九五
三月二十九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晝間二回十二時부터 六時半까지繼映夜間七時四十五分 大衆料金 階上席 十五錢 階下席 十錢均一
파라운트社全發聲日本版 恐怖의甲板 차ー리、랄플레스 종、하리데이 나ー루미ー하밀통 主演 포ー르스롱監督 自己殺人犯行을말하는者는容赦업시죽이는稀代의殺人魔! 이것은茫茫한大洋上한隻배에서일어나는血腥과恐怖! 犯人도、結局은驚의밥이되엿다! 긋까지絕息할만한恐怖가充滿한名篇!
大秦全發聲超特品 三枝源次郎監督 早川雪洲主演 爆擊飛行隊 宣戰布告! 空中에는航空隊! 海上에는無敵艦隊! 陸地에는百鍊한精銳! 敵航空母艦攻擊의下命組國을左右로하는古今未曾有의空中戰及大洋海戰의展開!
차푸링푸란드特作品 차ー리・차푸링自作自演 차푸링笑殺三段
次週豫告=地獄과大海原、日本人なればこそ모던新世帶
第一劇場
三月二十九日부터大封切! 天下待望의傑作篇! 絕讚名畫! 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라울월쉬氏監督作品! 男の魂 에드몬드로ー氏 빅타ー마크라그렌氏 主演 經育하도손河底의터널工事에가루인男性愛의極致! 鐵鬥전앨이貫天下의話題가되여잇는이때이映畫에依하여水底터널의槪要를알라!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盲目의飛行士 재무스후랏드氏大作品! 마ー나로이孃 케리그란드氏 主演 蒼空을憧憬하는사랑의꿈! 飛行中의爆發로失明한愛人을爲하여뉴욕ー모스코間의冒險飛行을마치고盲目의飛行을敢行하노나! 그러나그는世上을悲觀하엿다雲霧를向하여飛去하나죽엄의覺悟가안니엿든가? 生命을救하려는妙齡美女! 倩男倆女의空中交響曲 大都映畫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作品! 子別れ地藏 阿部九州男 川島子惠子 主演

어린이도 아라둘일
이슬은 엇재나리나
주 선 생

첨긔가 조코 밤이 되면 나무입 풀입에는 구실과가튼 물방울이 매치어 잇슴니다. 그것이 소위 이슬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운 한철 밤길을 것는 행인의 옷을 적시어 한운치를 이루고 잇슴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엇재서 생기는고 하니 밤이 낫보담 추워서 공긔속에 석기어잇든 수증긔(水蒸氣)가 아모데나 엉키어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것이랍니다. 한편으로 공중 공긔중의 수증긔가 이슬로 변하는바람에 공긔중에 고만 수증긔가 결핍되고 보면 이슬이 다시 날아서 수증긔가 되고 또 수증긔가 차저서도로 이슬이 되고 자꾸 뵈푸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슬은 수증긔가 엉키어 되는것이 아니요 나무입이나 풀입에 잇는 수분(水分)이 나재는 해볕에 날아가다가 밤에는 물방울로 엉키는것이라고 하얏습니다. 사실로 이슬은 다른데보담 나무입 풀입에 매치는것이라 그말도 유리하지 안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줍에다가 빨래를 벌여도 이슬이 마잣다고 축축해 지지 안슴니까? 그런것으로 보아서 공긔속에 잇는 수증긔가 엉키어 물방울이 된다고 보아지지안습니다까? 당시 나무입이나 풀입에는 자긔자신으로부터도 낫파가러 나르지 안코 처저잇는 수분이 잇습니다. 그래서 다른것보담 이슬이매치기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아침해가 나 저녁해를 등지고 이슬이 나린 풀비테 서면 사람의그림자가 이루어지고 그 자중에도 머리둘레로 동그런 테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슬로부터 생기는 광학작용(光學作用)으로서 그것을 광환(光環)이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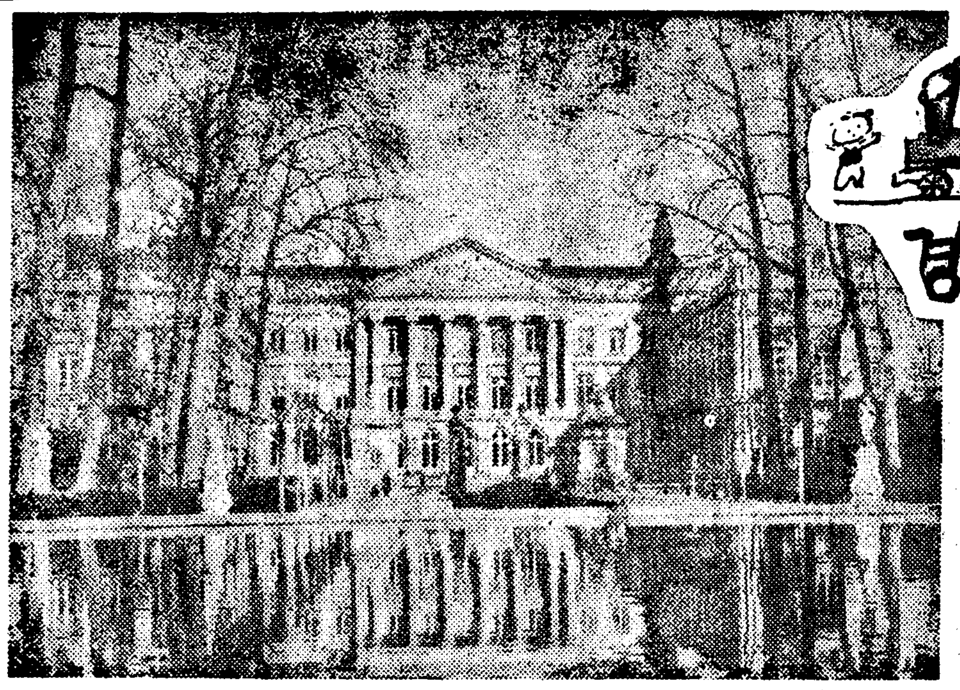
萬國서울구경
백이의의서울
부룻셀

그동안 여러곳을 거치서 어제아침에『부룻셀』로왓다.『부룻셀』은 이나라의 거의 중앙되는 해안에서 시작해서 사방을 버텨난섬이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한복판에『센누』강이흐르고잇는데 이강의 양쪽언덕은 낫고 차차로 놉하젓는데 강까는 상공업지대이고 놉흔언덕에는 귀족들의 화려한 저택이서 잇슴.『부룻셀』이라는 말뜻은『부룻쓴니』『부라이세라』니하는말에서 나온것이라는데 이것은 모다 습긔가잇는데 산다는말이라니 아마 이『센느』강까에 산다는말인가부다.

인제는 시가지구경한것을 대강 적어보겟다. 이 시가지를 소개하자면『부룻셀』공원이나국민관이나『몬다뉴·드·쿠-르』라는 전람회나 축재의 집회장이잇는산성을 들수가잇스나 그런것은 다두고라도 제일 자미나는 이야기를하나하겟다.

그것은 무어냐하면『마누겐·핏스』라고하는것인데 이것도오줌누는아이의 동상이다.이동상은『부룻셀』사람들이 아주 큰자랑꺼리로하는『부룻셀』시청엽헤 서잇는데 다른나라서울서는 볼수업는 이동상은 아주 옛날에『부룻셀』에 살든노주민을 대표해서 만든것이라고한다 그런데 이동상을 언제인가 한번 누가도적해간일이잇섯스나 그뒤에 고향이 그리웟든지 다시『부룻셀』로차저와서 지금까지 서잇는데 이동상은 백이의라는나라가 다른나라에 정복될때마다 대례복을 한번식은 갈어입는다고한다

물론 동상이 누는 오줌은 정말오줌이아니고 솟은 분수긔로 받는것이때문에 물이다.



정충신의이야기
어려운권대장의시험

정충신어라는 어른은 너의들도 알지.인조대왕때 이괄(李适)이의 난리를 처서 성공한유명한 장수말이야.그가 어려서는 전라도 광주(全羅道 光州)서 동인을 다니는 천한사람이 엇단다.동인이란 원님의 잔심부름을 해주는 것으로 사사ㅅ집의상노아히 일반이다.임진란리의 유명한 장수 권률(權慄)권대장(權大將)이 때마참 광주 원님으로 게시엇더라나.그래 동인아히중에서 정충신이 아조 령리하고 총명하야 아모래도 비범하단 말야. 한번 좀 시험을 보이고 시푼 생각이 나서 하로밤은 문지방우에 물담은 종지를 울려노코 또 그 여패 붓인지 무엇인지를 울려노코 불을탁 꺼지겟다.달도 업는 그몸밤에 불조차 꺼노호니 그속이 오죽이나 깜깜하겟느냐는 말이다.

『예 충신아』 불러서는 『저 문지방우에 언친 붓을 나려온』 일르섯지.

그러니까 그는 위선 발판 하나를 차저가지고 와서 울라 선뒤 가만가만 이곳저곳을 만지어 물종지부터 나려노코 그다음에 붓을 고내다가 드리더란다.그런 어린애로 그러케 창챙햇다말야.나종에 대장이 서울로 다리고 올라와서 공부도 시키고 버슬길도 려주엇지

박첨지의심부름
—전보를 치고오랏드니—(김용환)

조회시간

복동아, 순남아, 갑득이는 어드로 갓늬? 모다들 이리 모혀라.

인제부터는 너의도 학교생도가 되얏고나. 교모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메고 씩씩하게 걸어서 매일 학교를 다닌단말야. 그러나 생도된 갑슬 해야 한다.그러나 전처럼 사탕을 사달라고 울거나 동네아이들과 싸홈을 하고 울어서는 안된다.

학교가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듯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그러고 놀때는 유쾌하게 놀고 공부할때는 애써 공부하여라.그러면 선생님도 그 생도 참 훌륭한 생도로군 사랑하시고 집안어른들도 그 생도 참 조흔 생도로군 귀애하시지.그러케 선생님께고 집안어른께고 칭찬을 밧는 생도가 아조 참다운 생도야.

갑득이 넌 어듸 갓다 인제 오늬? 또 코를 흘리고 얼골에 앙광이를 그리엇고나.저러케해서야 어떠케 학교를다니나? 학교에 가면 여러아이가 웃고 놀리지. (남 복 실)

파화동화
금유리창달린집
강 신 주

언덕우에 집 한채가 잇섯습니다 이집은농사꾼의 집인데 무척구차한집이엇습니다 그래 그집의 아들되는『지미-』라는 조고만애는 아버지를도아 허구헌날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침에는 일즉이러나서 들에나가야되고 비오는날에는 집안에서 일을해야합니다.

해저물어서야 바테서돌아오는 지-미는 자거전뒤에 또하나잇는 언덕우에올라가서 멀리마진 짝편에잇는 금유리창달린집을 한참바라다보고 옵니다 허구헌날 간 김버하지안헛습니다 『올라! 그러면 오늘은 기어히 ... 이지요.『엇저면 저럼훌한 집도잇슬까 눈이부시게 번쩍하는 듯창이 달렷스니』하고 정신업시바라보다가 그집에서 덧문을 닷는지 금유리창이 안보이게될때래야 내려오군햇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지미-를 부르시드니『얘 너게 허구헌날 일을햇스니 오늘 하로는 쉬어라. 쉬기는쉬되 집에서 쉬지말고 네마음내키는대로 어데든지 가서놀다가 무엇이고 귀한일한가지를 배와가지고 도라오너라』하시면서 놀게해주섯습니다

『지미-』는 이소리를 듯고여 저『금유리창 단집』을 차자가봐야지』

이러케 속으로 결심한뒤 지미-는 어머니께 점심을 싸줍시요 해가지고 길을떠낫습니다 동리밖을나서서 허구헌날 일하든 자기집보리밧 책소밧도 지내습니다 그리고는 혼자터덜터덜금유리창달린집쪽으로작구만거럿습니다.

금유리창단집은 뒷산에서보기와 딴판으로 여간멀지안습니다 안만안만거러가야 그집나서야지요 그래서 다리도 웬겨가든 바레안저 점심을먹고 다시거럿습니다

얼마를가다보니 푸른언덕이나서는데 그언덕위를보니 거기에 늘건너다보든 그집이 서잇섯습니다

『올라 인젠 다와구나』 하고 지미-는 다리압흔생각도 엇고 얼른 언덕위로 뛰어올라가 그집에까지 가서는 위선유리창버텀 처어다보앗습니다

『웬일일까』

지미-가 아모리 눈을 비비면서보아도 그집은 그저인데유리창이 금이아니요 보통유리창이엇습니다

지미-는 너무설섭햇습니다 다른편으로는 울고도 싶헛습니다다 그래서 멍거니 그자리 떡부러서잇섯습니다

그때 그집주인마나님이나오며 『애가 웬아이냐』하면서 흘려드려 퍽귀엽게 생겻다는드시며 울것을 갓다주고 지미-와 동갑될뜻한 딸을 불러다주면서 가치놀게하며

『그럼 얘하고 잘놀다가 가거라』햇습니다

이집 어린딸은 지미-에게퍽 친절하게구럿습니다 자기집뒷켠에잇는 농장나무에서 농금도따서 ... 모때나보이는것이 아니고 보이는시간되야돼』하면서 지미-를 데리고 뒷산으로올라가서 멀리 마진짝편을 바라보앗습니다

그때는 마 해가지랴는때,건너쪽집 금유리창이 눈이부시게 빗날때엇습니다

지미-가 유심히 보니 건너편금유리창 달린것은 다른집이아니라 바루 자기집이엇습니다

지미-는 그집주인딸한테 고맙다는말을하고 호주머니에서 무엇꺼내 선사를햇습니다 그리고는부리나케 먼저오든 길로해서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집에도라왓슬때는 저녁때가 지나캄캄햇댐니다 집안에는 벌서 등불이 환해햇고,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나오시드니

『어디가서 얼마나 자미잇게놀고, 얼마나 훌륭한것을 배워왓느냐』하시면서 빙글빙글 우스십니다

『네 아버지 저는 오늘우리집에도 금유리창이 달린것을 아라가지고 왓서요』햇습니다 아버지는 이말을 드르시고 아모말도안하시엇습니다 그리고 벙그레웃고만게섯습니다.

(롤라·리차-드의 동화를 번안한것입니다)

피만흔포수

저-『아프리카』라고 하는곳에 가면 별별 이상한 풍속이 다 잇지마는 그중에도 부부『니제리아』라는데를 가면 산양군들이 엇더케 피가만흔지 사진과 머리에다가 새주둥이를 해달고서 숲속에 몸을 숨기고 살피다가 새나 즘생을 만나면 아주 익숙한솜씨로 활이나 총으로서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어른— 여보 내가 비록 원숭이지만 이래뵈도 서울물을 먹엇소 다른원숭이중에 누가 담배를 피우고, 안경을쓰겟니까.

기관차의왕

이런기차를 조선안에서보고 힘이잇습니까? 이기관차는 엄마전 미국에새로 맨든것인데 손님만 태우는 차를 달고 평장히 빨른속력으로 다라나게 맨든 긔차입니다

라디오

二十九日 (日曜)

◇午後六時童謠 一、달따러가자 二、羽衣(하고로모) 三、자장가 四、(?)子 五、(?)子 加明普校生徒 伴奏 (?)來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指揮 成福順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氣質과敎育∥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流行歌 一、世上十字路(李) 二、放浪者의노래(崔) 三、大同江打令(姜) 四、遼東七百里(李) 五、港口哀詞(崔) 五、서울타령(姜、崔) 李景漢 崔姸姸 姜南樹

◇同七時五五分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八時一五分 라듸오·드라마 『福順의一生』全二景 【配役】—發聲順— 李氏…金納英 金聖集…金海雲 漢壽…李武淑 韓泰淳…吉七水 韓明熙…李流星 金福順…陳慶淑 演出 李如水 放送劇新人會

◇同九時一五分 大笒獨奏 一、… 二、… 大笒 朴… 杖鼓 丁元…

第一放送

◇午後七時三〇分(東)라듸오·드라마

◇同八時三〇分(大)浪花節

◇同九時五分(東)放送劇 라듸오小說

三十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배스때라기外 一、배스때라기 二、신조한가 三、처녀가 四、플도령타령 五、가세타령 六、농가타령 閔亨植 申香心

◇同三時一五分 通俗家事講座(七) 金秩蕃

◇同六時 童話『기념비』 崔仁化

◇同六時一五分 經濟解說 徐椿

◇同七時三〇分 講演『生活의科學化』 李萬珪

◇同八時 빠이올린獨奏 一、協奏曲 빠빨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 二、빠이올린소나타 G長調 베-토-벤作曲 第三樂章 렌포·듸·메누엣토·마·올토 모데라-토·에·그라치오-도 三、챠르다스 몬듸作曲 피아노伴奏 桂貞植

◇同八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短歌어화靑春 二、唱劇調바라령 李興烈 金錦玉 鼓手 池龍九

◇同九時 古談『八王寺의復讐』 朴貞成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同零時五分 謠曲

◇同二時(東)婦人體育講座

◇同六時 피아노獨奏

◇午後七時三〇分 趣味講座

◇同八時 바이올린獨奏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三十一日 (火曜)

◇午後〇時〇五分(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同三時一五分 通俗家事講座(八) 金秩蕃

◇同五時〇〇分 梨花女專合格者發表

◇同六時 라듸오少女小說『先生님도우시엇다』—李瑞求作— (配役) 先生…金小泉 어머니…朴明淑 일순…金順姬 玉順…尹貞淑 效果 金浩升 指揮 金虎俊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講演『어떤方法으로事物을探求할가』 李晶燮

◇同八時 平壤歌外 一、平壤歌 二、博物打鈴 三、寧邊歌 四、金剛山打鈴 五、開城난봉가 六、楊山道 崔貞植 李忠善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검은蝶子』 朴應

◇同九時 歌詞 一、길군樂 二、乾坤歌 金蓮紅 金鳳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東)管絃樂

◇同二時(東)婦人時間

◇同六時(大)音樂物語

◇午後七時三〇分(大)講演

◇同八時 地唄

◇同八時三〇分(東)舞踊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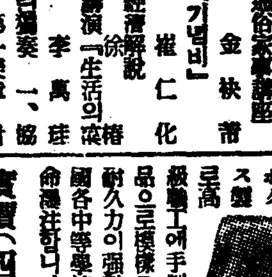
曆 五月三十日 (日) [illegible]

◎今年은革靴界에大刷新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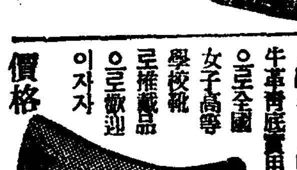
斯界에慧星갓치 發輝하는平安의陣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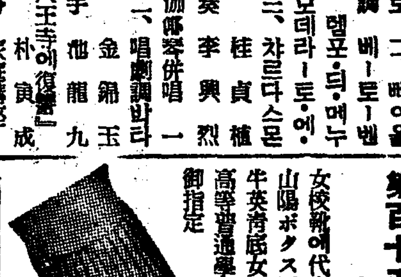
靴原料에王座山陽ボクス原料로 鮮滿(全國各官廳에御用達)(全國各中學校御指定)

SANYO LEATHER CO. HIMEJI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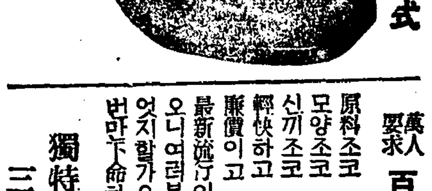

第二十七號 校靴 白鞣 好評 山陽ボクス製 高級職工에手製品으로堅牢한점 耐久力이強함으로全國各中等學校에서御下命續注합니다 實價(四圓八十錢)

第百九號 青年靴 時代適合 國產ボクス에牛革의底로된 堅牢하고 一九三六年에 青年에 得意品 價格은 단 二圓九十錢


第百十四號(女校靴) 山陽ボクス甲皮 牛革青底實用品으로全國 女子高等學校靴로推薦品으로歡迎이자자 價格 三圓五十錢


第百十五號(女校靴) 女校靴에代表品 山陽ボクス甲皮 牛革青底女子高等普通學校御指定 三圓五十錢

第百七號 露佛式 堅牢滿點 現代青年紳士에最適明한體裁일것입니다 보기조코耐久力은 二個年以上 大產大賣에 三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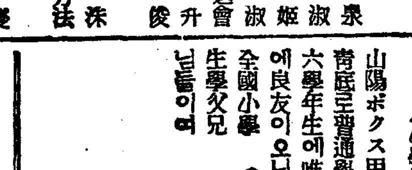

第百八號 半佛式 萬人要求 原料조코 모양조코 신끼조코 輕快하고 廉價이고 最新流行이오니 여러분들 엇지할가요만 번만下命하시오 獨特廉價 三圓八十錢 山陽ボクス牛革青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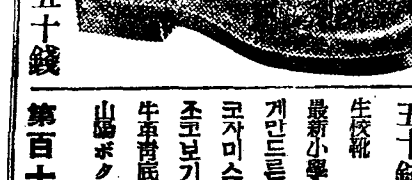
毛皮ナメ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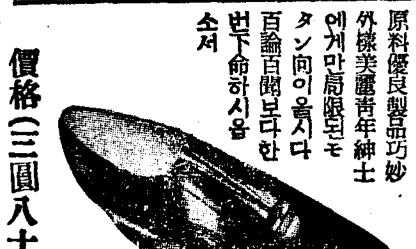
一、虎皮ナメシ
一、熊皮ナメシ
一、海豹皮ナメシ
一、緬羊皮ナメシ
一、山羊皮ナメシ
一、獺皮ナメシ
一、狐皮ナメシ
一、狸皮ナメシ
一、犬皮ナメシ
其他各種毛皮ナメシ及 目玉入 加工一式
(型錄請求次第 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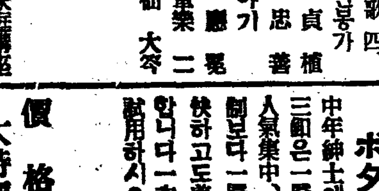
信用은 弊社에 運用資金

(朝鮮平壤)
平安製革社 革靴部
電話 長 一四三 二〇三番
振替京城一九四三四番
私書函平壤局八七號


第百十六號(小學生校靴) 山陽ボクス甲皮牛革青底로普通學校五六學年生에唯一에良友이오니 全國小學生學父兄님들이여 二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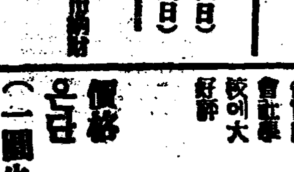

第百十七號(小學校學生靴) 山陽ボクス甲皮 牛革青底신기조코보기조코자미스럽게만드른 最新小學生校靴 (二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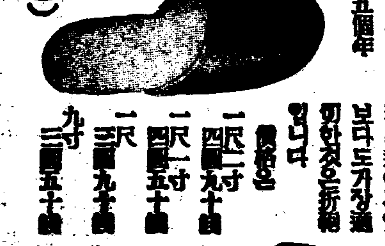

巧妙美麗 百四號 純佛式 原料優良製品巧妙 外樣美麗青年紳士에게만局限된モタン向이올시다 百論百聞보다한번下命하시옵소서 價格(三圓八十錢也)


人氣焦點 第八十五號 ボタン式 中年紳士에歡迎品 三個은一層焦點의人氣集中、有紐制보다一層輕快하고도美麗합니다一次試用하시오 價格 大特價(三圓八十錢)

新春卒業期는왓습니다친구의弟子에榮光스런卒業式에紀念선물은 新制折鞄가제一일것입니다 セビヤ折鞄 總牛革製 一尺三寸 五圓五十錢 一尺二寸 四圓九十錢 一尺一寸 四圓五十錢

綜合生產과販賣統制는 國富의基礎!
◎注意要項
注文=御注文은書信으로하시옵소서
送料=御注文하실時에는郵便切手(參拾九錢)을必히添付하시오
出荷=出荷는便宜上代金引換으로합니다
先金=先金下付하시는분에게는送料를弊社負擔
返送=맛지안어返送하시면送金도는更製
型錄=代理店規則無代進呈


總革(山陽ボクス牛革青底) 室內スレッパ 耐久力五個年 各官廳 會社事務에大好評 價格은단 (二圓也)


新春旅行에新春卒業에무엇보다도가장適切한것은折鞄입니다 價格은 一尺三寸 四圓九十錢 一尺二寸 四圓五十錢 一尺一寸 三圓九十錢 九寸 三圓五十錢
黑ボクス實用折鞄

見積내는法

寸法寸數에注意 注意●此圖面과가튼線을 우고周圍를그리고 [illegible]

最新式火災豫防法
民家의簇枝를全部破壞
原因은火災時鎭火困難
堤川消防組員怪擧

【堤川】충북 제천군 청풍면울리주재소에서는 당지 소방조원을 총동원하여 민가의 울타리를 주인의 승락도업시 함부로 파괴하엿다는데 파괴의유를 드르면 화재가튼것이 발생하면 진화에 극히 곤난함으로 이를예방하는것이라고 한다는바 전기동리로말하면 극빈자이니까 담도 치지말고 살으라는것이라고 금번 당국의 처사에 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義谷公普校의學年延長實現

【阿大】경주군산내면의곡공립보통학교(慶州郡山內面義谷公普校)는종래사학년제도이대 생도의수효와교통관계상으로보아 도저히 학교로 전화도식힐수업는 형편임으로 일반지원민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남어지 학년연장을 갈망하여오든바 오는신학기부터는 육학년으로 학년연장이 실현되[어] 가로동국의 인가가 잇섯다는데 교통을편한시킨레면민에게는 무엇보다도 반가운소식이라하나 오히려마지지란이 불무하다고한다

落岩에치어 人夫一名卽死

【元山】지난이십오일 오후세시경 원산부대화정(大和町)산비탈파양공사장에서 일을하고잇든 부내영정구십사번지(榮町九四)김재만(金在萬)(二七)은 돌연 산우에서 굴러떠러지는 바위덩어리에 두부를 어더마저 그자리에서 무참히 즉사하엿다고한다

蔚山郡에또强盜
棍棒으로牛商을毆打昏倒시키고
現金百餘圓强奪逃走

【釜山】십여일전에 경남울산군하상면(蔚山郡下)에서 살인조단도강도사건이 발생하야 경찰당국은범인체포에 맹활동을 하고잇는요지음에또 지난이십사일 오후구시경 울산군두서면복안리(蔚山郡斗西面伏安里)우상(牛商)정덕구(鄭德求)가 동군 언양(彦陽)시장에서 소한마리를판돈일백구십원을 가지고 집으로도라오는도중 돌연히 뒤에서 몽둥(棍棒)이로써 두부를 구타하야 혼도시켜노코 소지금 일백구십원을 강탈하야 어듸론지 도망하얏다한다 그래서 일반군민들은 무경찰상태라고 경찰당국의 무능에비난이 자자하다한다

九個月間中途退學生
勿驚!六百名의多數
授業料未辨所致가五割以上
教育黃海의이悲哀相

【海州】가가지지의 비극을 비저내는 입학시험지옥을 돌파한 행동을 차지하고서도 월사금미판을 비롯하야 신병기타관계로 그리운 학창을 눈물흘니며 떠나는 중도퇴학생이 날로느러가고잇는데 이는 작년도에잇서서의 교육황해의 면모를말하는수자가 증명하는터이다。 황해도학무당국의 조사에의하면 황해도내 팔개소의 중등학교와 이백여개소의 보통학교등 합계 이백십여교에 취학하든생도중 작년사월부터 작년십이월까지의 전후구개월동안에 본의아닌학창을떠난 중도퇴학생수는 중등학교 팔십사명과 초등학교오백십삼명으로 합계육백명이란 놀라운수에 달한다고한다。 이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신병거라의관계도 업지안으나 월액칠팔십전의 월사금을 변통치못하야 중도퇴학하는 가엽슨아동이 오할이상을 점령하고잇다하며 퇴학률을 도시와 농촌과를 비교해보면 도시보다산간지대가 훨신만흔경향을 뵈이고잇다한다

仁川商工會議所 代田會頭辭任

【仁川】인천상공회의소 회두 대전번치(代田繁治)씨는 그간 퇴호(堆浩)의원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엿스나 대전회두는 의연 사임치안코잇서 일개월여를두고 쌍방에 적지안은 분규를 일으키고 잇든바 드듸여 인천경찰서장 중재하에 퇴호씨로부터 불신임안을 취소하자 또한 대전회두로부터도 사임원을 제출하게 되엿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이십구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고하고 역원회를 개최하야 전후방침을 토의하리라한다

坑內에서作業中 鑛夫二名慘死
奉化大昌鑛山의慘事

【奉化】지난이십이일오후네시경 봉화군법전면눌산리(奉化郡法田面訥山里) 김대식(金大植)의소유대창광산(大昌鑛山)에서는 항내에서 일하든광부이명이 질식참사하엿다는바 그는본적을 봉화군명호면삼동리(明湖面三洞里)에 둔 김병노(金炳魯)와 동면동리에사는 박시양(朴時陽) 등두사람이 가튼굴에서 일을하다가 굴이문허저서 무참히도 두사람은 죽어버린것이라한다

大源寺住持等의 寺財大橫領事件
內容暴露四名檢擧取調

【釜山】경남산청군삼장면유평리(山淸郡三壯面油坪里)에 잇는 대원사(大源寺)(海印寺末寺)전주지(住持)회계 감무등 사명이 사금이천일백사십구원 구십팔전과 소작료로 중수한 정조(正租)팔십석 시가일천여원을 횡령소비한 부정사건이 탄로되여 금월초순경에 산청경찰서에서 피의자 사명을 검거하야 엄중히 취조를 하든바 요지음취조가 끗낫다는데 그범죄의 내용은 동군평촌리(坪村里)승려(僧侶)강태수(姜太守)는 소화사년유월에 전대원사의 주지에취임되여 동팔년시월에 해임되엿는데 재임중 수차로 사금 구백사십칠원을 횡령 소비하얏고 동대원사의 회계 리상건(李相鍵)과 감무(監務)김두관(金斗官) 등과 공모하고 전기강태수가 횡령 배상금으로 팔백이십일원을 납입한것을 수입으로하지안코 횡령소비하고 또동년십이월에 소작료로 정수한정조중 팔십석을 분배횡령하엿고 또동구년십이월에 역시전기와가튼 수단으로 도소작료팔십석을 횡령하야 전기와가티 분배하엿다하며 동사승려 박수완(朴守完)이가 자동차에 부상을 당하야 진주도립의원에 입원한 동인의입원비기타치료비 지출명목으로 삼백팔십원을 횡령소비한것등이라한다

洪原郡面廢合
來四月一日부터

【洪原】함남홍원군(洪原郡)으로 동종내십일면이던것을오는사월일일부터 다음과가티면을폐합하리라한다

洪原面	州西龍雲一部를合하여
雲鶴面	鶴泉龍雲一部를合하여
普賢面	好賢希賢兩面을合하여
景雲面	景浦雲浦兩面을合하여
龍源面	龍源面은
川浦面	龍川平浦兩面을合하여
甫青面	甫青龍雲一部를合하여

刑事라假稱하고 소판돈强奪逃走
犯人就縛、犯行自白

【泰川】작일 절도범한중에 자칭 형사행세를 하고 대담히도 소장사를 결박한후 소판돈 일백여원을 탈취하야가지고 유유히 종적을 감추엇다는 사건이잇다 평북 태천군서성면송곡동(泰川郡西城面松谷洞) 리창도(李昌道)는 지난이십오일인 태천장날에 소를팔러가서 소를 팔어가지고 집에 도라오든도중 오후일곱시경 태천면동부동(泰川面東部洞) 길거리에서 어떤자가 자전차를타고

慶南道의新起債
百二十萬九千七百圓
明年度土木事業費充當

【釜山】경상남도의 소화십일년도지방진흥토목사업비 락동강유역사방공사비 도비사방공사비 마산도립의원증축비등총계 일백이십일만구천칠백원인데 변오부이하의 저리로써 긔채하기로결정하고 방금준비중이라는데 그내역은 다음과갓다한다

地方振興土木事業費	四十六萬圓
洛東江流域砂防工事費	七十六萬八千圓
道費砂防工事費	四萬圓
馬山道立醫院增築費	一萬圓

水鎭面에서 中等講習新設

【義州】의주군수진면장 홍응준(水鎭面長洪應俊)씨외 수인의발긔로 이래수년간 만주어강습을 하야오든바 금번도부터는 입학난을조금이라도 완화하기위하야 동면수구동(水口洞)사립배신학교(培信學校)내에 중등학교강습소를 신설하고 조도전중학강의전후긔(早稻田中學講義前後期)만 주어(滿洲語) 기타 보습과목을 교수한다는바 수업료는 매월이원오십전 변 수업자격은 보통학교졸업정도요 계학희망자는 오는 사월칠일까지 모집이라는데 입학금은 오원이라하며 수업료는 부모의 지정이외는 바지안코 이후로의 무료로 원하는자는 사월구일내로 계출하여야한다고한다

言爭끄테毆打 畢竟死亡까지

【牙山】지난이십삼일에 충남아산군 량정면 명암리(牙山郡陽井面鳴岩里)에주소를둔 박경순(朴敬淳)은 동리사는권이태(權彝泰)에게 구타를당하고 이십사시간만에 무참히도 사망하엿다는데 그원인은 십여일전에 권이태와박경순등량인이 현금삼십원식을가지고 도박을 하엿는데 이를박경순의 부모가보고 권이태에게대하야 철물으는 자긔아들을 다리고 도박을 하엿다고 힐책하자 이를분하게생각한 권이태는 박경순을차저가서 언쟁을하다가 몽둥이로 박경순의두골을 따리여 혼수상태에 이르게하얏든바 결국 이십사시간만에 절명 되엿슴으로 소관온양서에서는 공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여 시체를 해부까지하고 가해자권모를 인치취조중이라고한다

平康郡下에 覆面强盜
平康署銳意探索

【平康】지난이십칠일 오후팔시경 평강군평강면 상갑리(平康面上甲里)에서 연초소매상을하고잇는 김부성(金富成)상점에는 나이이십칠팔세 가량되여 보이고 수건으로 얼골을 가리운 청년사한명이 드러와서 담배를사자고 하드니 돌연히 가만이잇거라하고 위협하며 바안에 노여잇는 연초저금통에서 사오원가량되는 현금과 칠십여전을 가지고 교묘히종적을 감추엇슴을 소관평강주재소에 (平康駐在所)에알리여 주재소원은 범인을 엄탐중에잇다고한다

生活難으로失眞 畢竟鐵道에轢死
二十二歲의有爲靑年

【開城】개성역에서 세번여섯시 판명되지안코 가매장을하고 어떤 상신분에출발하는 제일변신호를 떠레서서에서 신분을수사중이든바 차가 지난이십사일개풍군진봉면 이십륙일에야 진봉면흥동리 화동리(開豊郡進鳳面花洞里)부근 (進鳳面興洞里)구칠륙번지 오상을통과할지음에 어떤청년한사가 춘(吳上春)으로 판명되엿는데 궤도로뛰여들어 무참히자살한사 자살한원인은 비참한생활난 건이 발생하엿는데 시체의신원이 에원인한듯한때문이라한다

快報!또快報!
無産兒奬學金으로 二千圓價格土地提供
—潭陽金洪鏞氏壯擧—

【光州】지난삼월십오일에 담양군창평면창평리(潭陽郡昌平面昌平里)에사는 김홍용(金洪鏞)씨는 무산아동장학금에 충당하여달라고 이천여원가격의 부동산을창평공립보통학교(昌平公立普通學校)에 제공하야 지방인사들에게 만흔늑소크는고잇다 한다

▲金洪鏞氏談 의무교육이 실시되지못한 현하의조선 교육에잇서서 아동들의 성적이 아무리우수하다 할지라도 학자금이 업는관계로 그달그달의 수업료를밧치지못하게되면 정학이나 혹은 출학의처분을 당하게되여 천진란만한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쓸아림을 맛보게할뿐만아니라 전정을 꺽게되는현상을 수업시보게됩니다 이비의무교육(悲義務敎育)의결함을 완화할 방법은업는가하고 여러가지로 연구하여 오든중일부이나마 나의숙망을 달성하기위하야 약간의 토지를 제공하게된것입니다

고와서 자긔는형사인데 종조사할것이 잇다하고 전긔리창도를 결박하고 소판돈일백십원팔십전을 빼아서가지고 잠간기다리라하고 자전거를세워둔채로 어대론지 소관태천서에서는 즉시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체포에 노력한결과 이십오일밤에 유력한 혐의자일명을 체포하여다가 취조하는중이든바 취조에따라 전긔용의자는 범행을일일이자백하얏다는데 그자는 본적을 운산군북진면교동(雲山郡北鎭面橋洞)에사는 김게실(金桂實)이라한다

中等校合格者
井邑農業學校

李偶熙 金成玉 車光秀 崔桂烈 孫周夏 金璐吉 張南順 鄭洛謨 趙順性 趙泳光 丁炳元 梁在昇 朱南鎬 鄭星鳳 金致彥 鄭一均 李共晉 金洪善 金庚述 朴基台 車東璿 林相吉 李基烈 辛炳日 鄭金童 朴奇緒 河相基 徐南善 金永洙 姜炳錫 河南出 金龍植 閔判植 曹日煥 林永錫 徐昌源 金鍾萬 張月河 張炳義 殷鍾炳 吳桐模 韓福洙 李石珍 李三童 申瑋均 李永儀 金秉喆 白南均 兪鎭南 朴鶴彩 愼四範 朴正植 申少者 森實 西村繁光

地方人事

▲蔡義順氏(宣川保聖女學校敎員) 咸興永生高普轉任人事次本社宣川支局來訪

女性
創刊四月號
가장새로운女性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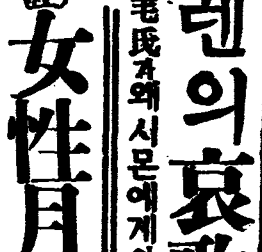
表紙畫安夕影

꼿時節에꼿가튼內容

定價十錢 送料一錢

處女와한때 — 팍스드로롤과 티가 金壽任 / 獨身頑固 鄭英淑

結婚前後내와남편 — 沈載淳·許河伯·金元經·李鷹淑·諸氏의말슴



렌의哀歌 毛氏가왜시몬에게이一文을보냇는가 毛允淑

女性月評 沈恩淑 — 女性이본女性의缺點이다

女大學 誌上講座 — 學校에서배홀수업는敎訓이다 — 結婚·李光洙 / 愛情·金興濟

産兒制限의可否를 드르라 — 아이貴한것은업서서그럿타아이를만히날까 — 朴吉來 / 趙寶景

西文 女優四題 — 畫=張勃、具本雄、金瑢俊 安夕影 文=鄭芝溶 李箱 朴龍喆 金起林諸氏

봄·콩트 金裕貞·安懷南

봄·隨筆 달내……李泰俊

春山女 — 봄엔『하이킹』에 金尙鎔

女學校하이킹隊巡禮 ☆梨花女專☆京城保育☆

實話 咀呪바든運命 洪英淳

레코드世界名歌手巡禮 호산나

流行提案 어떤것을流行식히고십흔가 — 朴基采、金文輯、李相昊、安夕影、洪陽明、韓普容

봄과流行·流行과봄 — 봄의化粧을이러케

새로운부억 厨房設計 새살림一題 朴吉龍

홀몬의生理 文仁柱

봄을꾸미는마음 諸氏

봄化粧은어떠케 鄭婷靜

내가걸어온길 — 映畫女優 文藝峰 / 新舞踊家 陳壽芳談

小說 — 四葉클로버의꿈 李石薰 / 『문라잇쏘나타』 金文輯 / 長篇 瀨死의白鳥 咸大勳

映畫解說 未踏의處女地 (P生)

레코ー드推薦市場 名士諸氏

畫報 — 華麗한봄寫眞 / 봄의感化 / 陽春映畫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